



다시 읽는 칼빈의 설교 ②

교회의 회복과 부흥

(미가 7:10-12)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의 진흙 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목도하리로다. 네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 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 날

에는 앗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하수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나. (미가 7:10-12)

미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볼 것이고 그들의 기업을 다시 찾게 될 것이라고 말한 뒤에 이제, 그들의 대적이 하나님의 의를 보리라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자들의 인내를 연단하기 위하여 악인들을 한동안 벌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십니다. 잠시 믿지 않는 이들은 믿는 자들의 환난을 보면서 자기들이 승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심이 그들로 순종하게 하려 하심이었다는 것과, 하나님은 당신의 징계가 짧고 항상

실로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복음의 순전한 교훈을 우리의 은혜를 주셔서 이 약속의 일부를 이루셨습
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 시리엔 온갖스럽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지라도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복된 결말을 가지고 온다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 그 때를 크게 감하신다는 것
을 인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와는 달리 우리 눈은 불신자들을 근본적
으로 다른 방식으로 벌하신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
로 그들을 땅 속 깊이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악인들이 우리를 그렇게 담대하게 조롱할 때 우리는 불행한 생각을 가지지 말
시다. 우리의 환난을 참아 냅시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의 소망과 소원 모
두를 완전히 짓밟아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너무 잔인하여 우리를 완
전히 없애 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것을
보면 그들의 소원이 반은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실로 그 하나님의 진
노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슬렀기 때문에 주어짐에도 불구
하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들로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잠시 그들은 크게
변성하게 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시어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라고 생각하는 시험에 들게도 될 것
입니다. 그러함에도 미가는 우리가 살다 보면 악인들이 심판을 받게 될 날을 보
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거리의 진흙같이 밟히리니…….” 진흙같이 밟

으시는 것은 성경 전반에 걸쳐 하나님의 심판을 표현하시는 성령의 보편적인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우리 주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혹독한 징벌을 시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불드시고 그들을 유순하게 다루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환난을 가볍게 하십니다. 그들이 혹독한 심판을 받기에 합당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악인들과 패역자들은 조금도 살아 날 가망이 없이 진흙같이 밟히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어두운 구름 같은 대적들의 수중에 들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빛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의 약속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철저하게 의지하고서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듯이 보이는 악인들의 큰 번영을 볼지라도, 우리는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의 선고를 집행하시는 날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를 미워하시는지 사랑하시는지 육신의 눈으로 판단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육안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나 모든 일이 우연에 의하여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실로 악인들은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환난이 동등하게 주어지는 것을 보고서, 모든 것이 순전히 운수소관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는 식의 자유분방한 발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보는 것을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며 당신을 대적하여 거스른 모든 자들을 징벌하실 때가 오기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같이 금방 그러한 일을 하지 않을 것을 확실히 알고 계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미가가 “그것을 내가 목도하리다.”고 말하는 바와 같습니다. 악인들이 번성하는 것을 볼지라도 우리는 시험에 빠져서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37편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악인들의 번성은 그들이 하나님의 손을 피하였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

님께서 그들의 죄를 잊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지나치실 것임을 뜻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장래를 바라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혼란 중에 있고 아무 것도 우리의 편에 서있지 않은 것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질서정연하게 하실 것을 기억합시다. 파멸된 모든 것이 회복되고 고쳐질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눈이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한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그 어느 것보다 더 놀라운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불신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온 세상이 구원 얻기를 소원해야 하지 않느냐? 우리가 육체적인 마음을 따라서 악인들이 고난을 받는 것을 즐거워하면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터인즉, 모든 영혼들의 저주를 즐거워하지 않을 분명한 이유를 가진 것이 아닌가?” 우리는 미가가 하나님의 성령의 관점에서 말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반면에 우리의 관심은 아주 미숙한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적인 지각과 정욕은 전적으로 혼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는 어떤 조절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이들의 저주를 요구할 권한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사 우리의 모든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면, 우리는 불의한 자들의 저주를 사실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판단에 집중하고 있고, 우리가 육신적인 소욕에 따라서 복수하고픈 마음으로 충동을 받고 있지 않다면, 그 악인들의 저주를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육신적인 소욕에 따라 복수심으로 치우치기를 잘합니다. 이것은 이 대목을 강해하면서 우

리가 주목해야 할 첫째 요점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둘째 요점은, 미가는 악인들에게 임하는 재난을 즐거워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너머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뻐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소원해야 하고, 그 일을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에 사람들에게 대한 모든 것을 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에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원수들을 제압하시어 당신의 발등상이 되게 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패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는 모든 자들에게 복수를 행하시므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사람에 대한 것은 잊어 버려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부르사 당신께로 오게 하시는 자들과, 당신의 양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것을 잊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비추십니다. 그러나 나머지 모든 이들에 대하여 말하면, 우리는 그들의 환난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악인들이 제압을 당하고 거부되는 정도만큼 더 온전케 되기 때문입니다.

요약하여 말하면, 미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악인들이 저주 받는 일을 즐거워할 권한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미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관점에 기초하여 그러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관점이란 심하게 뒤틀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 말씀들은 우리의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적인 소욕에 의하여 충동을 받기보다 순결과 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의 의를 영화롭게 하는 데 기울여져야지 우리 자신의 복수심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

하여 모든 인간적인 정서를 극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인들이 하나님의 원수들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원수들에게 다른 치방이 없음과, 그들이 패역자임과,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알리고 당신의 위엄을 높이시기 위해 그들을 저주하실 필요가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할 때, 비로소 우리는 악인들의 저주를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저주당하는 것도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지배를 받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강한 복수심에게 온전히 매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육신적인 복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미워하는 자는 누구든지 다 멸망되기를 바라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소원을 가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함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정서란 극단적인 데로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의 정욕을 잠잠케 하시고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의 뜻과 맞게 해주십시오 하고 해야 합니다. 우리를 그 복수심에서 건지 사 모든 이들의 구원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로 구속하신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실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무분별함을 경고합니다. 우리가 악인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변화시켜 당신께 순종하는 자로 만드실지 아닐지 말할 수 없으나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우리 대적들이 우리를 조롱하면서 “네 하나님을 믿고 소망한다고 해서 네게 온 유익이 무엇이냐?” 고 말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심이 틀림없습니다. 그들이 이런 식으로 말할 때에, 그들은 우리를 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요, 하나님이 우리 구주가 되시겠다는 약속을 전

혀 지키지 못하셨다고 하면서 비난합니다. 만일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여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내심을 연단하시거나 우리의 죄를 징계하시기 위해 우리로 환난 당하게 하심을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로 매나 막대기로 씨름을 당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섭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악인들은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을 보고 우리를 조롱하지만 악인들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통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신성모독을 벌하지 않고 그냥 지나친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 대적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즐거워하면 할수록, 그만큼 우리의 믿음은 강해져야 합니다. 미가의 본을 통해서 보듯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왕인 히스기야는 산헤립과 랍사게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구원하겠다고 한 약속을 철회하였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소리를 듣고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그들이 당신을 어떻게 모독하는지 들으소서. 그들이 이 성을 구하시겠다는 당신의 약속을 조롱하나이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일을 그냥 용납하시려나이까?”

히스기야는 우리에게 기도의 제일 원리로 삼아야 할 기도 방식을 보여 주었습니다. 악인들과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교만과 오만으로 눈멀어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가운데 “우리는 네가 믿는 하나님의 자비가 어떠한을 잘 눈여겨 볼 것이다!” 라고 말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 믿음에 더욱 견고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을 대적하는 우리의 제일 무기입니다.

우리는 악인들이 크게 세력을 떨칠 때마다 시험당하여 방황하는 많은 이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원수들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 그들의 수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모독을 당하는 것을 보고 가



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들어 백성들을 구원하신다고 하신 약속을 신실히 지키심을 보여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미가의 말을 깊이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악인들이 우리를 조롱하면서 우리 믿음이 속임수라고 말하는 것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님을 인식함으로 우리는 그러한 시험을 대비하여 우리 자신을 무장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귀가 사람들을 절

망케 하려 할 때 쓰는 오래된 수법입니다.

다윗에게도 그 방법을 썼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아들의 예표요 그림자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악인들은 그를 조롱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저를 도우시길!”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악인들이 다윗의 믿음, 심지어 우리 주님의 믿음까지도 조롱하는 것을 보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식으로 시험하시는 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환난을 당한 뒤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들의 정당한 기업을 다시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고 미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을 전적으로 악에 방임시킨 악인들은 그들을 누르시는 하나님의 무거운 손을 느낄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그 날에 성벽이 재건되리라” 고 말합니다. 그는 지금 여기서 은유적(隱喻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집과 같으며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항상 말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 날에 이르러 예루살렘의 성벽과 문들이 재건 될 것이라” 고 할 때,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회복시킬 것이며, 교회가 파멸된 채로 항상 있게 하지 않으실 것임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가는 말합니다. “네 성벽이 건축되는 날 곧 그 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유대인들은 이 대목이 하나님께서 바벨론 성을 무너뜨리시지만 하면 더 이상 그 성에 조공을 드릴 필요가 없을 것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그 해석은 미가의 의도를 전혀 알아맞히지 못한 해석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의 문자를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의도에 대하여는 눈이 멀어 있어서 전혀 그 문제에 대하여는 깨달음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문자를 통해서 성령께서 의미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미가는 교회를 계속 위로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듯이 합니다. “실로, 너는 큰 파멸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네가 다시 회복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이 주께서 재림하시기 전에는 온전하게 성취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적당한 기회에 그 문제를 더 분명히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미가가 이 대목에서 사용하는 명사는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어떤 경우에는 규례, 율법, 계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조공을 바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백성들이 공적인 법령에 따라서 나라에 공물을 바치라는 명을 따라 바치는 경우와 같이 말입니다. 이 대목에서 어느 것을 택하든 의미는 같습니다.

미가의 의도는, 갈대아 사람들에 의하여 백성들이 압제당하는 기간이 결국은 끝나게 될 것임을 말해 주므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로하려는데 있습니다. “네가 노예 된 자리에서 벗어나 성벽을 재건하게 될 날이 이를 것입니다. 그 날에 칙령이 반포될 것이다.” 곧 유대인에게 자유를 주어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한 고레스의 칙령이 반포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약속은 그 기간 동안에만 한정 되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바벨론에서 건져 내셨던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구속하시는 때까지의 모든

구속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신 때에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었습니다. 요약하여 말하건대, 미가는 교회의 원수들이 우리를 이긴 것 같이 보더라도 결코 우리가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 일들이 혼란스럽고 우리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그 파멸에서 건지실 것임을 견고하게 믿고 있어야 합니다. 이 요지는 다음의 시편에서 아주 분명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주여, 다시 세울 때가 왔사오니 예루살렘의 반석들을 기억하소서.” ‘예루살렘의 반석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 시편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교회로 하여금 파멸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며, 당신의 반석들로 하여금 중도에 좌절당하는 일이 없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러합니까? 재건할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은 사실상 믿음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 있는 중에 기도한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때에 그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약속들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지은 것이 아닙니다. 포로로 잡혀 있던 한 포로에 의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그는 예레미야와 미가의 영감을 통하여 이렇게 기도할 줄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여, 당신께서는 우리의 포로로 잡힌 기간이 짧을 것임을 약속하여 주셨나이다. 주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그것이 우리도 오늘날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서운 황폐의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절망적으로 보입니다. 실로 우리 주님께서 발판을 확보하셨으나 일은 더 나아지지 않고 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파멸케 한 장본인들으로써 더 이상 황폐함 속에서 고쳐하지 않게 하여 주십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실로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복음의 순전한 교훈을 누리는 은혜를 주셔서 이 약속의 일부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 시대가 혼란스럽고 고통가

운데 있는 것을 불지라도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시 질서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직무를 알고 있습니다.

만일 미가 또한 이사야가 말하는 바에 따라서 공물을 의미한다는 식으로 해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 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바벨론에서 구원하여 내심과 주님의 도래에 대하여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곤고하게 하는 멍에를 깨뜨려 부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점을 분명하게 해주기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한동안 끔찍한 노예 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너희에게 공물을 바치라는 조례와 칙령이 반포 될 것이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는 갈대아 사람들 아래서 종살이 할 때에 계속 공포를 느낄 것이다. 공물을 바치라는 사신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이 폭군의 부하들이 너희를 탈취하고 착취할 것이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그래서 미가가 “공물 드리는 일이 제거될 것이다.”고 말할 때,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였던 짓밟힘을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황주의 아래서 끔찍하게 종노릇한 데서 건짐 받는 것도 역시 이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멍에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 멍에는 우리를 신체적으로 압제하였을 뿐 아니라 잔인한 폭군에게 복종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마귀의 괴롭게 하는 파멸의 무서운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짐을 단순히 가볍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모든 전통과 사람들이 지어낸 모든 것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더 이상 영적으로 구급되어 있는 상태에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멍에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모든 자유보다 더 우리에게 은혜롭고 달콤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하심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황 주위의 명에서 건져 주실 때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얼마나 큰 것인가를 인식하기로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자원하는 심정과 기꺼운 마음으로 부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인식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인간이 만든 제도나 우리의 공로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님을 즉시 알게 될 것입니다. 미가를 통해 주신바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서만 그러한 자리에서 진점 받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귀와 사람들과 그 속박의 굴레에서 건져 주사 우리로 기꺼이 당신께 나아오게 하셨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어째서 사람들이 마귀에게 매여 종노릇하며 서로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복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롬 1:25)고 말하는 바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마귀, 아니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를 압제할 것입니다. 고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리를 조아 매어 말같이 길들여서 사단에게 넘겨지는 자들이 아니게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완고함과 궤역함으로 가득하여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느끼실 때에도 우리를 파멸하지 마시기를 간구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교도의 왕인 고레스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서 예루살렘의 성을 재건하게 하실 수 있으신 그 무서운 권능을 과거에 보여 주셨다면, 복음은 그보다 더 크고 효력 있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 주님께서 한 가련하고 눈 먼 이교도의 칙령을 따라서 당신의 백성들을

건지실 능력을 가지고 계셨다면, 당신이 자신을 낮추사 땅에까지 오셔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당신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신 분이 우리에게 그보다 더 크신 능력을 행사하실 수 없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 의심할 여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실 수 있으시고, 건지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배은망덕으로 자신을 과멸시키지 않기만 하면 말입니다.

미가가 “그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하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성벽이 재건되게 하라는 명과 칙령이 반포되게 하실 것입니다. 마치 미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친구들이여, 하나님께서 어느 날 너희를 찾아오실 것을 기대하라. 너희로 잠시만 포로로 잡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그것을 참고 견어 나가야 한다. 그러므로 인내와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너희를 구원하실 것을 바라보라. 너희가 참으로 그 약속을 믿으면 그리 되리라.”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를 향한 미가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인내하면서 기다립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악 가운데서 오히려 선을 이루실 소망을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는 이 크게 교통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넘어지거나 좌절당하지 않도록 합시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빠르게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 않더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이 우리의 유익이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사 “오라” 하시면 그 어디라도 따라 갈 것입니다.

이 거룩한 교훈을 따라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우리 자신을 숙이고, 우리의 죄가 수를 헤아릴 수 없음을 아뢰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그 말로 다할 수 없이 많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노를 무단하게 격동시켰습니

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사 우리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에도 용기를 잃지 않게 하소서. 심지어 우리가 가장 깊은 심연에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보호자와 인도자로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 속에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믿음 안에서 강하게 하사 마귀와 세상과 우리 육체의 정욕의 모든 공략을 성공적으로 대항하게 하시어,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들과 모든 나라들에게도 베푸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의 죄가 당신의 노를 격동시켰기에 무서운 황폐가 도처에 있나이다. 옛적에, 당신께서는 구원하시는 능력을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기념할 만하게 입증하여 주셨나이다.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사 당신의 교회가 일어서서 참된 종교가 번영되게 하시고, 당신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며 영화롭게 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계속 당신의 도움을 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구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비참하고 부서진 세계를 다시 회복하실 것임을 전혀 의심하지 않게 하려 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아들 우리 구주께 주신 그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사, 계속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 싸움을 계속하게 하시고, 살아 있는 증거를 통하여 우리의 소망이 헛되지 않음과,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적이 없음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 『칼빈의 미가 강해』, 서문강 역 (서울: 잠언, 1996), 416-418 에서 역자의 동의하에 발췌함.